**고대의 기쿠치가와 강 유역 토지 구획**

기쿠치가와 강 주변의 벼농사는 2,000년도 더 전에 광대한 평야 곳곳에 존재하는 작은 논에서 시작되었다. 이 분산형 농업은 8세기에 중앙 정권이 새로운 토지구획제도를 도입할 때까지 계속되었다. 조리세이라고 하는 새 제도는 농지를 일정한 칸으로 분할함으로써 농민에게 배분, 사용권 관리, 토지세 징수가 쉬워졌다. 또한 균등한 구획은 질서정연한 관개에 따른 생산성 향상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. 이랑과 도랑을 이용하여 경작지를 한 변이 109미터인, ‘조(町)’라고 하는 약 1헥타르의 구획으로 분할했다.

기쿠치 강 유역에는 그러한 구획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어서 하늘에서 보면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. 비행기 창문에서, 또는 기쿠치(鞠智) 성터의 전망대에서 보면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.